

지방분권과 교화발전을 위한 교구 자치제의 향후방향

- 지구 조직 정비의 필요성 방안 -

김윤태 위원: 교화훈련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I. 들어가는 말
- II. 지구 활성화의 필요성
- III. 지구의 준 행정조직화의 필요

I. 들어가는 말

지방분권은 말 그대로 현재 중앙정부(부처)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이에 의해 파생되는 권력을 지방정부(즉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경우, 그동안 중앙부처 중심의 국가발전을 추진하여왔고 이에 따라 많은 권한들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재량권이 제한되어왔고, 중앙부처의 지시와 감독아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하부조직적인 성격을 보여왔다. 그러나 시장과 군수 등을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고, 이제 지방의 행정기관들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지역문제를 처리해갈 필요성이 늘어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는 중앙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재량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은 현재 중앙정부부처에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고유 업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해가는 것을 말한다.

교단적 입장에서도 교화발전의 상호보안을 위해 교화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와 권한을 교구와 지구 또는 교당 재량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형편상 미비한 점이 있으나 지방분권을 능률적으로 정비하는 일이 현장교화를 살리고 교단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출가교화단규정 2조(목적) ‘출가교화단은 본교 출가교도를 이단치교의 이념 아래 조직적으로 관리하여 공부 사업의 촉진과 대중교화로 일원세계 건설에 유능한 조직이 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에 보는 바와 같이 출가교화단은 교단의 통치조직이다.

또한 교화단의 대표인 단장은 동법 9조 3항 ‘團 以下 단은 단장은 최고 법위자 중에서 단원이 선출하며, 중앙은 단장이 임명한다. 단, 교구장과 지구장은 당연직 단장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구장과 지구장을 당연직으로 하여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단을 대표하는 교구의 경우는 법과 제도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저단을 차지하며 실질적 현장교화의 장인 지구는 아직 조직의 정비가 미비

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출가교화단의 최하위단을 차지하고 있는 지구는 국가조직에 비하면 광역단체가 아닌 자치단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조직에서 광역단체와 자치단체의 역할이 각기 다른 만큼 우리 교단에서의 교구와 지구의 역할도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현장교화와 직접 관계하는 지구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단 조직의 완성도를 높이고 교화현장과 중앙이 상호협력하며 교단발전을 도모하는 교단 조직이 되리라 본다.

II. 지구 활성화의 필요성

현재 교규 상에 나타난 지구의 역할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교구규정 제47조에 ‘지구는 지역별 교당연합체이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구를 교화 중심 기구이기 보다는 연합모임의 형태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44조(연합행사) ‘특별행사는 지구별 연합행사를 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구전체의 연합행사를 할 수 있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화활동의 영역에서는 지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점이 드러나 보인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구의 역할은 교화중심 역할보다는 연합활동을 목적한 역할에 중심을 두고 운영되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앙과 교구의 규모가 커지고 또한 그 역할의 내용이 조금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교화 중심지의 역할로서는 지구의 역할이 더욱 증대되고 강조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지구를 국가조직의 자치단체와 같이 조직을 정비하고 교단 조직의 하나로써 확대시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1) 교화 활성화 방안으로서의 필요성

교구규정 제44조(연합행사)에서 보면 ‘특별행사는 지구별 연합행사를 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교구전체의 연합행사를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현장교화가 중앙이나 교구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활동보다는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함을 보여주고, 또한 대규모의 전시적인 행사보다는 소그룹 단위의 교당교화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교화활동으로 방향을 선회해야함을 제시한다고 본다.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주민편의 우선행정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국가에서도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 분권국가를 향한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중앙집권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지방자치제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현장교화 역시 교도를 우선한 교화서비스가 펼쳐져야하고 시행되는 모든 훈련 및 교화활동도 교도 중심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지구 중심 활동이 더 중대되고 강조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교회 및 현장교회에 대해서는 지구교무들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더욱 이 교회상황이 열악한 개 교당 중심으로는 다양한 교회 활동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지구별 활동을 확대함으로서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도 많은 부분 중앙이나 교구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더욱 보완되고 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교회공동체로서의 필요성

본인이 속한 지구의 경우 9개의 교당이 교화단에 편성되었으며 보좌교무가 속한 교당을 제외한 7개의 교당 가운데 6개의 교당이 교무 혼자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 교당별로 보면 어린이집이 있는 교당이 3개 교당으로 교무 혼자 어린이집과 교당 교화를 담당하느라 가중된 업무에 힘들어하고 있는 반면 4개의 교당 경우 주로 일반교화만을 운영하고 있다.

부안지역의 경우 교단에서 시범적으로 교회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동체교화 확대의 한 방향으로 지구의 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구별 교회공동체로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 교회공동체 운영의 목적이 효율적인 인력 사용과 지역사회교화의 적극적 접근과 교무 단독으로 교당에 있지 않게 하는 것 등에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현장교화에 참여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교화에 보다 많은 교무가 동참하고 교당운영에 있어서도 개 교당으로 중심이 아닌 지구공동체로 지구 교당 전체가 함께 협력하여 운영하도록 제도 정비를 기한다면 현장교화에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교역자 재교육의 장으로서 필요성

현재 우리 교단이 안고 있는 많은 현안 가운데 교역자 재교육 문제도 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교단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는 교역자의 재교육 문제는 아직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며, 1년에 한 번 있는 일주일 정도의 교무 훈련과 최근 있는 전무출신역량개발교육이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정작 교화현장에 필요한 교육(설교, 순교, 교당조직관리 등)은 충분히 교육받을 곳이 많지 않고 또한 교화 현장의 상황 상 학교나 중앙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는 경제적 여건이나 시간적 여유의 부족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나마 우리가 재교육 문제를 해결해 갈 방안으로는 지구의 모임을 활성화 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해 가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작년 출가교화단 총단회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설교연구모임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지구의 역할을 확대하여 매주 1일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공동 설교 안을 작

성하고, 기타 현장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자체 토론이나 발표를 통하여 서로서로 교육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교단적 부담으로 안고 있는 현장교화의 둔화는 결국 현장에 있는 교당교무의 재교육과 노력 없이는 해결되기 힘들다고 보여 진다. 따라서 지구를 통한 자체 재교육은 혹 내용이 부족하고 전문성은 부족할지라도 재교육 과정을 교당에 필요한 내용을 습득할 것이고 더욱이 교역자의 교화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중앙의 교화부나 교구는 지구 교무의 모임이 재교육과정으로 충실히도록 다양한 자료와 필요에 따른 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교역자간 공동체 정신 함양으로서의 필요성

현재 현장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교당별 경제적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550여개의 교당 가운데 50% 이상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어려운 교당이라고 볼 때 결국 현장에 있는 교무의 대부분은 어려운 상황에서 교화활동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당의 경제적 수준이 열악하다는 것은 결국 그 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교당교무의 상황도 어렵다는 것이고, 최근 교역자의 희망 근무처가 교화 현장보다 국가에서 위탁받은 복지시설이나 수련관 또는 기관이 선호되는 것이 결국 교당의 경제적 어려움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 교단의 상황으로 볼 때 교화현장의 어려움을 교단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교화현장에 사는 교무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는 것도 교화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교화 현장에서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교구 자체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방안은 교역자의 공동 임용제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도중에 중단된 교구도 있었고 아직 전 교구로 확산되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설정이나 현장교화를 살리고 교역자간 고통을 분담하는 교단 공동체 정신을 함양한다는 중요한 목적에서도 이 방안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출가교화단의 단 운영원칙도 기쁨, 보람, 유익을 지향하는 만큼 단원 간 어려움을 나누고 더불어 교역자간 공동체 정신을 창출하는데 공동 임용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교단과 교구 전체적으로 도입하기는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먼저 지구의 제도를 정비하여 지구 교당 간 상호 협력 하에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한다.

5) 기타

교역자의 사기 진작과 교역자의 정신적 해이를 막는데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III. 지구의 준 행정조직화 필요

현행 교규에 보면 교구는 원불교 행정조직의 한 단위이다. 반면 지구는 지역별 교당연합체에 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조직에서 자치단체가 필요한 것과 같이 교단의 조직에서도 교화만을 전담하는 준 행정조직이 필요하고 지구가 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교단의 현실로 볼 때 어려움이 있겠으나 앞으로 교단이 발전하고 교구가 확대된다면 결국 교화 현장을 담당하는 조직이 구성되어지리라 본다. 따라서 교화 현장과 가장 밀접한 개 교당을 연합하여 소규모 교화활동만을 담당할 교화 중심기지로서 지구를 준 행정 조직화하여 운영함이 요청된다고 본다.

현재와 같이 교당연합체의 형태로 운영한다면 지구의 구속력이 결여되고 책임감의 부재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준 행정조직화 함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함이 필요할 것이다.